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인류는 여러 차례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양식과 노동시장의 변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해 왔습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A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전망이 공존합니다. 미래 사회에 일자리 축소를 전망한 대표적인 보고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입니다. 미국의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인지능력 및 조작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을 분석하고 해당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산출하여, 향후 10~20년 내에 전체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킨지앤컴퍼니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좀 더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앞선 연구와 달리,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18가지의 능력에 기반하여 약 2,000가지의 작업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가 이미 현존하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으로 산정하면 연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언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체 가능한 업무의 비중은 58%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은 세부 직종이 다루는 핵심 기술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이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 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방대한 수치와 자료에 대한 계산과 처리, 복잡한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부터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으며, 일부 영역에서 대체 현상이 관찰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의 직무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과 기술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사회적 지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물론 ‘폴라니의 역설’을 들어 과학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발생할 현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확대와 개별 가구의 가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값싼 재화의 제공과 확장된 구매력이 가계소비의 증가를 추동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노동수요가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동시간의 축소로 인해 갖게 될 여유를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여가, 여행, 오락, 미용, 의료, 쇼핑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영역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술밖에 없는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수준의 일자리 비중은 감소

하고, 숙련 일자리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질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저임금 혹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 좋지 않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 노동의 문제는 기술적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양극화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전형적·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고용형태가 다각화되면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결되어 노동이 수행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임금이 낮고 고용상태와 환경이 불안정하며,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철저히 전가하고 있는 사실도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관계의 질적 변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각화 현상이 심화 혹은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하는 노동의 핵심은 기술적 실업에 대한 걱정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우려를 100% 확산하기 어렵지만, 후자는 일자리의 질 저하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설계된 전통적 분배체계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